

2026 - 3호
(2026. 8월 셋째주)

정책 동향

◆ 국정 동향

◆ 시정 동향

◆ 타시도 동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https://council.jeonnam-gwangju.go.kr> / 062-613-5194

목 차

I. 국정 동향 1

- ① 【법 제 처】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 1
- ② 【행정안전부】 7대 역점과제 본격 추진 4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사회 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 본격 추진 ... 6

II. 시정 동향 8

- ① 【관광과】 전국 최초 ‘섬 반값 여행’ 추진으로 체류형 관광 확대 8
- ② 【기업도시담당과】 국가 AI 컴퓨팅센터 착공으로 AI 산업 거점 도약 본격화 9
- ③ 【정책기획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대비 유치 대상 45개로 확산 10

III. 타시도 동향 11

- ① 【대 구 시】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 구축 본격화 ... 11
- ② 【전 북 도】 국내 최초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 개시 12
- ③ 【경 남 도】 우주항공복합도시·남해안 특별법 조속 제정 건의 ... 14

국 정 동 향

1

법제처,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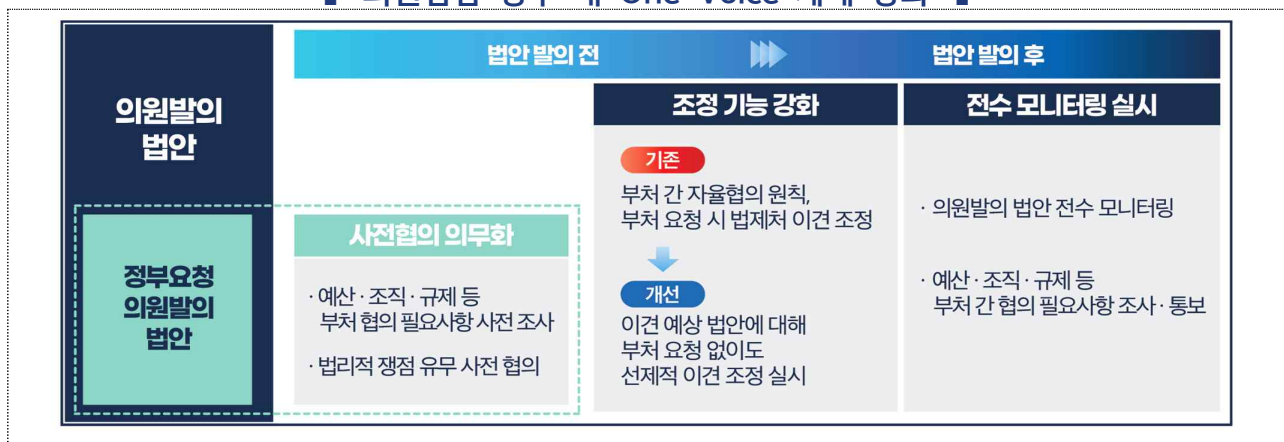
- 법제처는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을 주제로 이재명 정부 제2차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입법전략 수립부터 정책 집행까지 정책 추진 전 과정에 걸친 법제지원을 통해 국정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힘.
- 법제처는 올해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로 ▲국정성과의 속도를 높이는 입법전략 수립·관리 ▲의원입법 정부 내 One-Voice 체계 강화 ▲제재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형벌 합리화 ▲법체계 정립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법령 전수조사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법적 자문제도 안착 ▲AI 법제플랫폼 구축을 선정하고, 정책 추진 전 과정에 대한 법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첫째, 국정성과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 법안 49건을 재검토하여 25건의 입법방식을 법률 제정에서 개정으로 전환하고, 범정부 법률 입법계획 768건 가운데 하위법령으로 우선 추진 가능한 92개 과제를 선별해 신속한 정책 추진을 지원할 계획임.

■ 국정과제 법안 입법형식 개선 주요 사례 ■

당초 법률 제정 추진	개선 현행 법률 개정 추진
(가칭) 방과후학교 지원특별법 • 방과후 돌봄·교육의 목표, 운영 체계, 중앙·지방 정부 책무 등 방과후학교 법적 근거 마련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 둘째, 의원입법 추진 과정에서 정부 내 통일된 의견(One-Voice)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요청 의원입법에 대한 법제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의원발의 법안 전체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계획임.
- 또한 부처 간 이견이 예상되는 법안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선제적으로 조정하여 법체계 정합성과 정책 일관성을 강화할 예정임.

■ 의원입법 정부 내 One-Voice 체계 강화 ■



- 셋째, 법제처·법무부 등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1만 1천여 개 형벌 조문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태조사, 일괄정비를 추진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임.
- 넷째,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3,496개 행정법령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상위법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 등 개선 과제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경제단체·지방정부·학계 등과 협력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법령 개선도 추진할 예정임.

- 현장 개선사례로는 의료기기 통신판매업 영업소 규제를 개선해 주택이나 창업보육센터로 제한하던 규제를 완화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물 용도와 관계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해 법령 정비를 추진 중임.

〈 법령정비 현장 목소리 〉

- ▶ **“주택이나 창업보육센터가 아닌 곳에서도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의 영업소는 주택 용도의 건축물 또는 창업보육센터만 가능한 것으로 일선 현장에서 법령을 해석·집행하고 있어 기업의 영업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을 파악한 현장 공무원이 법령정비 개선 건의를 제안, 앞으로는 영업소가 일정 요건만 갖추면 건축물의 용도 제한 없이 의료기기를 통신판매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식약처·국토부 협의 완료(26.6월), 정비안 마련 중

- 다섯째, 지난 5월 출범한 법적 자문 전달기구를 통해 정책 기획·입안·집행 단계별 법률 자문과 법령입안을 지원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사전에 해소할 계획임.
- 여섯째,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자연어 기반 AI 법령검색 서비스를 구축해 누구나 질문만으로 필요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AI 기반 법제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예정임.

키워드 검색 퇴직했을때 임금과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I가 분석한 질문 의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급 시기

AI가 추출한 핵심 키워드

퇴직

임금

언제

AI 추천 법령정보 콘텐츠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해고근로자

6. 체불임금 구제

미지급 임금,
퇴직금 구제 절차

▶ 결과요약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법령정보 검색 결과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바로가기

기준: **법령** 행정규칙 조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바로가기

▶ 판례·해석례·결정선례 등 검색 결과

법제처 법령해석
(법제처 21-0020)
부당해고 명령에 따라 지급 금품이
14일 이내 청산...

헌법재판소 결정
(2010헌마515)
사용자가 청산하여야 할 금품의 범위에
임금이 포함되므로...

- 행정안전부는 8월 5일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6개월간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한 7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함.
- 첫째, 국민이 체감하는 친절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 AI 기반 ‘혜택 자동 신청 서비스’를 연내 시범 개통하고,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임.
- 또한 ‘모두의 토론회’, ‘모두의 광장’ 운영과 「시민참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온 AD) 확대 및 공직 AI 전문가 2만 명 양성을 통해 디지털 행정 혁신을 추진할 방침임.
- 둘째, 책임 있는 지방자치와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 제안 사업을 2030년까지 3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지방 행정 모니터단 운영과 주민소환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아울러 「사회연대경제 기본법」과 「기본사회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청년 마을 조성 및 햇빛소득 마을 확산 등을 통해 지역 주도 성장 기반을 마련할 예정임.
- 셋째, AI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해 「제1차 생명 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풍수해 AI 예측모델을 구축할 예정임.
- 또한 폭염 취약계층 보호와 무더위쉼터 확대, 수상안전요원 및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 확충, 산불·대형화재 대응훈련, 어린이 통학로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임.

- 넷째,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수사 인력과 시스템을 확충할 예정임.
- 아울러국가경찰위원회 기능 강화와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방침임.
- 다섯째,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을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 또한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인구 활력+지역’ 지정을 통해 지방 주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할 방침임.
- 여섯째, 간첩 조작·국가 폭력 가해자 정부포상 취소와 인권 침해 사건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임
- 또한 하천·계곡 불법시설과 불법 현수막 정비, 지방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등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나설 계획임.
- 일곱째, 지방세 환급금 원스톱 청구, 미성년 자녀 증명서 온라인 대리 발급, 빗물받이 위치표시 표준안 마련 등을 추진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또한 중고거래 모바일 신분증 인증을 도입하는 등 생활밀착형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여나갈 방침임.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4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미래사회 도약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함.
- 첫째,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전기국가(Electro-state)’ 실현을 추진할 계획임.
- 태양광·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원전 적정 운영을 병행하고, 간척지·접경지역 대규모 태양광 조성, 공장지붕 태양광 의무화, 주택용 태양광 잉여전력 현금 정산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을 강화할 방침임.
- 또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와 첨단산업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장치(BESS)를 확충하고, 지역별 전력요금체계 개편, 전력감독원(가칭) 신설,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석탄발전 조기폐지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공정한 전력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임.
- 둘째, 기반시설 혁신을 통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가수도기본계획 재검토 주기 단축, 하천수 허가물량 재배분, 농업용수·발전용수의 복합 활용 등을 통해 수자원 운용 효율성을 높일 방침임.
- 아울러댐과 하천 연계 운영 확대, 광역상수도 전면 정비, 하수처리수 재이용, 지하수저류댐 및 이동형 해수담수화 시설 확대 등을 통해 가뭄·홍수 등 기후재난 대응 물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임.

- 셋째, 산업 전반의 탈탄소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K-GX(녹색 대전환) 실현을 추진할 계획임.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 등 탄소 다배출 산업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업종별 핵심기술 확보와 관계부처 합동 K-GX 전략 마련을 추진할 방침임.
- 또한 2030년 신차 전기차 비중 50% 달성 및 공공부문 전기차 전환을 추진하고, 히트펌프 보급 확대, 녹색금융 지원, 재생에너지 산업 및 직류산업 육성 등을 통해 녹색성장 기반과 미래 신성장동력을 강화할 계획임.
- 넷째,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임. 미래 폐자원 회수, 핵심광물 추출, 폐배터리 순환이용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고, 핵심광물 함유 폐자원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할 방침임.
- 아울러 재생원료 사용의무 확대, 다회용기 사용 확산, 의류 재활용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을 통해 제품 생산 단계부터 순환이용 기반을 강화할 예정임.
- 다섯째, 기후재난과 환경 유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안전망 강화를 추진할 계획임. AI 기반 홍수 대응 체계 구축, 국가하천 AI 감시카메라 및 디지털 트윈 활용 홍수관리, 빗물받이 정비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임.
- 또한 화학물질 안전교육 및 위험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미승인 살생물제품 유통 차단, AI 기반 독성평가 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고농도 오존 예보와 미세먼지 저감사업 확대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나설 예정임.

시정 동향

1 관광과, 전국 최초 ‘섬 반값 여행’ 추진으로 체류형 관광 확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6 전남광주 섬 방문의 해’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계기로 전국 최초 ‘섬 반값여행’ 사업을 추진하며 섬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나서고 있음.
- 섬 반값여행은 타 지역 거주 관광객을 대상으로 섬 여행 시 발생하는 운임, 숙박, 음식, 체험 등 관광경비의 50%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관광지원 사업으로, 관광객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섬 지역 체류와 소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사업은 8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목포, 여수, 고흥, 보성, 강진, 영광, 진도, 신안 등 8개 시군 16개 섬에서 운영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관광객은 8월 10일부터 ‘JG TOUR’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여행 시작일 5일 전까지 사전 신청할 수 있음.
- 참여 관광객은 거주지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등록 후 승인 절차를 거쳐 여행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섬 지역 내 숙박업소·음식점·카페·체험시설 등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 후 소비 금액의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음.
- 특히 섬 지역 내 3만 원 이상 소비 시 해당 섬이 속한 지역 가맹점 이용 실적도 인정하는 등 관광객 편의를 높이고, 지역화폐 환급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행정안전부 ‘2026 섬 방문의 해’와 연계한 공동 홍보와 함께 JG TOUR 앱을 활용한 남도 숙박 할인, 1+1 투어 이벤트 등 통합 마케팅을 추진해 섬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임.
- 아울러 섬 반값여행을 전국 최초의 체류형 섬 관광 모델로 정착시켜 2026 전남광주 섬 방문의 해와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고, 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임.

2 기업도시담당과, 국가 AI 컴퓨팅센터 착공으로 AI 산업 거점 도약 본격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해남군 산이면 기업도시에서 국가 AI 컴퓨팅센터 착공식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에 본격 착수했음.
- 국가 AI컴퓨팅센터는 인공지능 연구개발과 AI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초고성능 GPU 기반 컴퓨팅 자원을 구축·운영하는 국가 핵심 디지털 인프라로, 산업계와 연구기관, 대학 등에 안정적인 AI 컴퓨팅 자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 센터는 2028년까지 40MW 규모로 구축하고, AI 수요 증가에 따라 2030년까지 80MW 규모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약 2조 5천억 원을 투입해 해남군 산이면 기업도시 내 전산동·운영동·부속동 등을 조성할 예정임.
- 특히 국가 AI컴퓨팅센터를 중심으로 AI 반도체, 클라우드, 데이터, 소프트웨어, 디지털서비스 관련 기업 집적과 전문인력 유입이 기대되며,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 산학연 협력을 통한 대한민국 대표 AI 혁신 생태계 구축이 전망됨.

- 또한 국가 AI컴퓨팅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전략적 기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AI 반도체, 전력, 첨단 제조 역량을 연계한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 육성과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임.

3

정책기획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대비 유치 대상 45개로 확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앞두고 공공기관 유치 대상 기관을 기존 40개에서 45개로 확대하고, 유치 목표를 재정비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 기존 에너지·환경, 농수산, AI 등 첨단산업, 문화예술, 사회 서비스 분야 공공기관에 더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 용수관리, 소부장 기업지원 등 관련 공공기관까지 유치 대상에 포함하며 유치 전략을 확대했음.
- 이를 위해 관계부서와 교육청, 전남연구원, 광주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공공기관 유치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전남도 중심으로 운영하던 유치추진단을 관계부서를 포함한 100여 명 규모로 확대 개편해 범특별시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했음.
-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은 지난 3월 출범 이후 40개 목표 기관 가운데 27개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 유치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산업역량을 결집하고 공공기관 유치 경쟁력을 높일 계획임.

-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3대 핵심 전략을 마련하고, 8~9월 수도권과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산업경쟁력 홍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범특별시민유치위원회(가칭) 구성 및 범시민 유치운동 전개를 중점 추진해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과 경쟁력을 적극 알릴 계획임.
- 또한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교육·생활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사회단체와 연계한 범시민 유치 활동을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행정통합에 따른 정부 인센티브와 특별법상 공공기관 우선 이전 원칙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적극 추진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

타 시 도 동 향

1

대구,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 구축 본격화

- 대구시는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국가로봇테스트필드와 연계한 안전인증 거점 조성을 통해 세계적인 로봇산업 중심도시 도약을 추진함.
-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가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안전성 검증과 국제표준 기반 인증체계 마련을 목표로 추진됨.

-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86.5억 원(국비 96.8억 원, 지방비 78억 원, 민자 11.7억 원)을 투입해 달성군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부지에 조성될 예정임.
- 사업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총괄하고, 고등기술연구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계명대학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등 전문기관이 참여해 시험·평가·실증·인증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센터는 동적 안정성, 인공지능(AI) 신뢰성, 사이버보안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안전성 검증 및 국제표준 인증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의 안전인증 획득과 해외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임.
- 특히 EU 인공지능법(AI Act), 사이버복원력법(CRA) 등 글로벌 규제 강화에 선제 대응하고, 국내 로봇기업의 인증 부담을 줄여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대구시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등 기존 로봇산업 인프라와 안전인증센터를 연계해 연구개발부터 실증, 인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완결형 로봇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할 방침임.

2

전북, 전국 첫 보육활동 보호센터 공식 출범

- 전북특별자치도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보육활동 보호센터’를 공식 출범하고 보육활동 보호체계 구축에 본격 나섰다.

- 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활동 보호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보육교직원의 심리 회복과 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운영을 시작했음.
- 최근 보호자의 폭언·폭행, 과도한 민원 등 보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피해 교직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호센터를 설치했으며 보육활동 침해 상담, 심리상담 및 심리회복 지원, 법률상담 연계, 침해 예방교육, 보호자 인식개선 교육·홍보,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또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심리회복 프로그램 ‘담폴’과 연계한 심리 지원을 비롯해 권리교육과 안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육활동 침해로 교직원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교사 지원 까지 연계하는 등 침해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했음.
- 이번 보호센터는 서울·경기도가 기존 고충처리기구를 활용하는 것과 달리 독립된 보육활동 보호 전담기구를 공식 출범한 전국 첫 사례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독립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고 상호 존중하는 보육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보육교직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심리 회복과 권익 보호를 강화해 아이·부모·보육교직원이 모두 신뢰하는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 경상남도는 국회를 방문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요청했음.
- 경남도는 두 특별법을 영호남 상생과 국가 미래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보고,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 방문 건의 등 입법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정부의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연구·행정 기능을 집적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 우주항공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임.
- 또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해양관광과 조선·우주항공·방산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 보전산지·국립공원·수산자원 보호구역 등 중첩규제 개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경남도는 앞으로 남해안권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해안을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이자 세계적 해양관광·우주항공 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임.

참 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 핵심 조항

구 분	주 요 내 용
제1조(목적)	· 우주항공분야의 산업 활성화,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해 새롭게 조성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국가 발전 이바지함
제2조(정의)	· “예정지역”이란 우주항공, 우주발사체 등으로 특화된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제26조·제27조 (위원회 구성)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관할 시·도지사, 민간인 등 20인 이내로 구성
제29조 (전담조직 설치)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 설치
제30조 (특별회계 설치)	·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운영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를 설치 하도록 함
제39조 (예타면제 특례)	·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특례 규정
제40조~47조 (각종 지원사항)	· 우주항공캠퍼스 조성·운영, 자율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우선 지정,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특례,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의 운영에 대한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자금지원 등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우주항공, 우주발사체 특화 국가산업단지

▶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사천·진주지구)

- 위치 : (사천지구) 경남 사천시 용현면 일원
(진주지구) 경남 진주시 정촌면 일원
- 면적 : 1,662,076㎡(50만 평)
(사천지구 25만평, 진주지구 25만 평)
- 기간 : 2017~2025년
- 사업시행 / 승인기관 : LH / 국토부



▶ (전남광주)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 위치 : 전남광주 고흥군 봉래면 일원
- 면적 : 1,519,660㎡(46만 평)
(1산단 14만 평, 2산단* 32만 평)
* 2산단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사업 대행
- 기간 : 2026~2032년
- 사업시행 / 승인기관 : LH, 전남개발공사 / 국토부



참 고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핵심내용 및 규제 현황

□ 특별법안 핵심내용(현행법 비교)

구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현행법(해안내륙발전법)	비교
범 위	남해안권(경남·전남광주·부산)	전국(6개 권역)	지역 특화법 전환
추진기구	조직 신설 (남해안종합개발청/국토부, 남해안발전위원회/총리실)	기존 국토부 산하 조직 (국토정책심의회·기획단 중심)	국가 컨트롤타워 신설
규제완화 확대	특례 신설 (보전산지·개발제한구역 해제)	-	핵심 규제 대폭 완화
재정지원	특별회계 설치	-	안정적 재원 확보
예타면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전략사업 추진 가속화

□ 규제현황

○ 해안권별 규제 면적 비교

- (남해안의 규제면적) 동·서해안의 2.5배~4.5배

▶ 수산자원보호구역 동해안의 37배 / 보전산지 서해안의 13배 / 국립공원 서해안의 4배

(단위 : km²)

구 분	남해안권				동해안권	서해안권	비고
	합계	경남	전남광주	부산			
계	11,773	3,783	7,493	497	4,624	2,548	
수자원보호구역	408	135	273	-	11	68	
보 전 산 지	5,745	2,060	3,445	239	2,639	418	
국 립 공 원	554	207	346	-	324	138	
개발제한구역	431	233	-	198	253	267	

※ 연안에 인접한 시군대상으로 산정

○ 권역별 규제 비율

- 특히 경남 남해안은 복합규제 면적을 모두 합치면 경남의 행정구역 전체 면적을 초과하여 땅보다 규제면적이 많음(전체의 113%)

(단위 : km², %)

구 분	남해안권				동해안권	서해안권	비고
	합계	경남	전남광주	부산			
규제비율(B/A)	91.7	113.5	83.8	86.9	50.8	26.7	
행정구역면적(A)	12,843	3,333	8,938	572	9,099	9,530	
규제 총면적(B)	11,773	3,783	7,493	497	4,624	2,548	